

기독교선교와 이슬람다와에 대한 분석과 제안 : 말레이시아 “TABLIGHI JAMA’AT” 사례를 중심으로

조재혁*

I. 들어가는 말

II. 이슬람다와 - CASE STUDY “TABLIGHI JAMA’AT”

III. 무슬림을 향한 기존의 기독교 선교접근과 재고

VI. 종교 성장세를 통해 본 기독교와 이슬람

V. 제안: 21세기 바람직한 기독교선교의 방향성

VI. 나가는 말

* University of Birmingham PhD 과정 중

■ 한글초록

지난 2000년간 기독교는 선교 활동으로, 반면 이슬람은 1400년간 다와(Da'wa)로 진리의 영역을 전세계로 넓혀 나갔다. 이러한 지리적 확장은 문명 간의 충돌과 교류를 가져왔고 양측 모두 정복의 승리와 피식민지의 아픔을 경험하게 만들었다. 불행히도 역사 속에 이러한 승리와 아픔의 경험은 서로를 향한 편견과 두려움 그리고 오해를 양산했다. 두 종교의 이러한 경쟁적인 구도는 진리전파의 활동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왔다.

본고는 최근 타블리히 자마앗으로 불리는 말레이시아에서의 이슬람 포교 운동의 한 사례를 살펴보고 기독교 선교와 그 유사점을 논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기독교와 이슬람의 성장세를 비교 분석한 후에 두 종교의 희망적인 공존을 위한 바람직한 기독교 선교의 방향성을 제안할 것이다.

주제어: 타블리히 자마앗, 이슬람다와, 기독교선교, 개종, 종교성장세, 상호존중, 협력

I. 들어가는 말

기독교는 무함마드 시대(622-632)부터 이슬람과 끊임없는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독교와 이슬람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명목으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두 진영 모두 서로를 향한 미움과 박해 그리고 편견과 오해속에 자신들의 종교적 길을 걸어왔다. 과거 십자군 전쟁이 증명하듯 기독교와 이슬람은 오랜 세월 동안 경쟁과 전쟁의 역사 속에서 상호 정복과 식민지를 서로 경험했다. 1000년 이상 동-서 기독교의 방패 역할을 해오던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1453년 술탄 메흐메트 2세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 유럽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하나님과 정복자 무슬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반면 20세기 초, 제1차 세계 대전의 패전 국가로 전락한 오스만 제국 (1299-1922)이 서구 열강 국가에 의해 분할과 해체를 경험할 때, 이 뼈아픈 역사적 사건은 과연 무슬림들의 신앙과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지금도 기독교와 이슬람은 여전히 반목과 갈등을 빚고 있다. 2007년 말레이시아의 한 무슬림 여성이 공식적인 기독교 개종을 고백했다. 이 문제는, “민주사회에 기초한 개인의 종교적 자유인가? 이슬람 법에 근거한 배교의 문제인가?”를 놓고 뜨거운 사회적 논쟁으로 번져갔다. 그녀의 종교적 개종 문제는 마침내 민사재판에서 종교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 사건은 Multicultural Soci-

1 기독교와 이슬람의 문제를 문명의 충돌 및 다른 시각으로 풀어내는 연구물을 참조하기 바란다. 서동찬, “현대의 폭력적 사태와 관련한 문명충돌론,”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8, no1 (July, 2015), 43-54. 그 외에 Lewis, Bernard, “The Roots of Muslim Rage,” *Atlantic Monthly*, Vol. 266, No.3 (September, 1990);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이희재 옮김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2016).

ety 국가의 사회적 통합을 강조해 온 말레이시아에 분열을 야기시켰다.² 이 재판은 결국 이슬람국가에서는 무슬림의 개종은 절대 허락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일단락되었다.³ 반면 유럽의 프랑스 공립 학교에서 발생한 무슬림 여학생들의 부르카, 니카브, 차도르 등의 두건 착용 허용 문제를 놓고 무슬림 시민과 프랑스 세속주의자 간의 논쟁이 벌어졌다. 탈종교적 교육가치를 오랜 이데올로기로 주장해 온 프랑스의 세속주의자들은 학교 안에서 무슬림의 두건 착용을 반대했고, 무슬림 공동체는 민주주의 사회안에서의 종교적 자유를 주장함으로써 두 집단간의 갈등은 커져갔다. 2000년 프랑스 헌법 재판소가 개종이나 포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건하에 교내에서의 두건 착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무슬림의 자의식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지만 프랑스 언론은 공교육 기관에서의 두건 착용은 여성에 대한 억압의 상징이자 사회적 통합을 막는 문화적 표현으로 보았다.⁴

그러나 두 종교 공동체는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만을 갖고 있지는 않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정치, 문화예술, 관광, 경제, 자원, 과학 그리고 심지어는 군사적인 영역에서도 서로 협력하며 21세기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공존하고 있다. 이슬람의 식민지를 경험한 가

2 일명 'Lina Joy'의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을 둘러싸고, 2000년대 초반 말레이시아 이슬람법정(The Shariah Court)에서 수년에 걸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다. 위의 사건은 공식 이슬람국가에서 무슬림은 타종교로의 자유로운 종교적 선택이 허용될 수 없다는 최종적인 판결로 결론이 났다. 자세한 내용은 T. Kortteinen, "Islamic Resurgence and The Ethnicization of The Malaysian State: The case of Lina Joy," *Sojourn: Journal of Social Issues in Southeast Asia*, vol.23, no.2 (Singapore: ISEAS, 2008)을 참고하라.

3 개종과 관련된 법적 재판 과정은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Harding, Andrew, *The Constitution of Malaysia* (Oxford: Hart Publishing, 2012).

4 Soper, J. c., Fetzer, S. J., "Religious Institutions, church-State History and Muslim Mobilisation in Britain, France and Germany," *Journal of Ethnic & Migration Studies*, Vol. 33 issue 6, (August, 2007).

톨릭 국가인 스페인 남부도시 ‘그라나다’에는 중세 이슬람적 아라베스크 문양의 독특한 정원양식과 르네상스의 건축양식이 결합한 알함브라 궁전이 있다. 지금도 이곳에는 일반 여행객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수많은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이 궁전의 우아한 예술적 미와 종교적 문화유산을 즐기기 위한 발길을 내딛고 있다. 이란을 비롯한 중동세계에서 산출되는 다량의 원유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로 수출되고, 중동의 여러 국가에서는 이탈리아 및 유럽의 명품 브랜드가 인기속에 판매되고 있다. 이슬람의 발원지이자, 순니파 무슬림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독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후원한 미국으로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무기를 매년 수입하고 있다.⁵ 위와 같이 이슬람과 기독교는 반목과 타협이 공존하는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최근 이슬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주제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글을 쓰고 있다.⁶ 또한 기독교 선교학의 관점에서 이슬람이 주도하는 포교활동을 다룬 연구물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루어 졌다.⁷ 따라서 필자는 이미 언급된 선행

5 중동과 미국의 국방 및 경제협력의 좋은 예로 다음의 외교부문서를 참조하라. “2019 사우디아라비아 개황.” file:///C:/Users/yesch/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9CA6UNGA/2019%20EC%82%AC%EC%9A%B0%EB%94%94%EC%95%84%EB%9D%B-C%EB%B9%84%EC%95%84%20EA%B0%9C%ED%99%A9.pdf/(2022년2월14일 접속).

6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과 적개심 등을 선교학적 시각에서 다룬 연구물은 Muslim-Christian Encounter 2016년 가을호를 참고하라. 정승현, “이슬라모포비아의 이해와 선교학적 함의,”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9, No.2 (September, 2016). 그 이외에 The Runnymede Trust, *Islamophobia: A Challenge For Us all* (UK: The Runnymede Trust, 1997); Jocelyne Cesari, “Islamophobia in the West: A Comparison betwee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in John L. Esposito and Ibrahim Kalin, eds. *Islamophobia: The Challenge of Pluralism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Tamara Sonn, *Is Islam an Enemy of the West?* 김문주 옮김, 『어떻게 이슬람은 서구의 적이 되었는가?』 (서울: 시그마북스, 2017).

7 기독교 선교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슬람-다와의 연구물은 아래의 저널을 특별히 참고하기 바란다. 권지윤, “이슬람 다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한국 무슬림의 활동에 대한 연구,”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3, no.1 (April, 2010); 안신, “이슬람 다와에 대

연구들의 반복을 가능한 피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20세기 이후 이슬람과 기독교의 선교가 실질적으로 두 종교확장에 주요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요인임을 살펴볼 것이다.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이슬람과 기독교의 상호 협력과 평화적인 공생을 위한 보다 건설적인 기독교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 이슬람-다와의 대표적 사례인 타블리히-자마앗의 활동과 다와 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무슬림을 향한 기존의 기독교 선교모델을 재검토할 것이다. 셋째, 이슬람과 기독교의 최근 성장세를 분석하고 선교와의 관계성 여부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분석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동반자의 입장에서 21세기 이슬람에 대한 보다 건설적인 기독교선교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슬람다와⁸ – CASE STUDY: 타블리히 자마앗 (TABLIGHI JAMA'AT)

2020년 코로나가 한창 발생시기, 무슬림 전도협회로 불리는 타블리히 자마앗 (Tablighi Jama'at) 소속 16,000명의 회원들이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한 이슬람사원에서 국제모임을 가졌다. 그 모임을 통하여 코로나-19가 말레이시아와 주변 지역에

한 신학적 이해: 이슬람선교의 기초와 한국 이슬람의 문서선교”; Larry Poston, *Islamic Da'wah in the West: Muslim Missionary Activity and the Dynamics of Conversion to Isl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그 외에 Khalid Mahmood Shaikh, *Da'wah in Modern Times* (New Delhi: Adam Publisher, 2006).

8 본 글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 두 진영의 선교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명확한 이해와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슬림이 주도하는 포교활동은 '이슬람다와(Islamic Da'wa)로 사용하겠다.

빠르게 전파가 되었다. 이러한 감염병의 전파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고, 이를 계기로 그 동안 비밀스럽게 활동하던 타블리히 자마앗의 실체가 세상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 동남아시아 이슬람전문가인 맥아미스(Robert Day AcAmis)는 일찍이 타블리히 자마앗(무슬림전도협회)을 20세기 이슬람 다와의 대표인 단체로 주목하였다.⁹ 이 단체의 시작은 이슬람국가에 거주하는 명목상의 무슬림을 대상으로 이슬람 신앙교육과 전도훈련 및 영성훈련을 통하여 그들을 이슬람의 참된 예배자로 인도하려는 선교적 과업에 목적을 두었다. 20세기 초기에는 수피 신비주의와 이슬람의 순수한 종교적 가치만을 중요시하였고 정치적 참여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세 중반 이후 유럽과 미국, 동남아 지역에 거주하는 비무슬림을 대상으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는 국제 이슬람 다와 단체로 성장하였고, 그 이후 학교, 보건소, 협동조합, 각종 인터넷과 사업체 그리고 사회사업 및 정치활동의 참여를 통하여 포교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1. 타블리히-자마앗의 성장과 교리

타블리히 운동을 최초로 일으켰던 마울라나 무함마드 일리야스(Maulana Muhammad Ilyas, 1885-1944)는 1927년 인도 이슬람 순니파 계열의 보수적인 꾸란 해석을 지지하는 데오반디(Deobandi) 단체 회원으로 이슬람학자 겸 교사였다. 인도에서 시작된 타블리히-자마앗은 이슬람 수피즘(Sufism)의 신앙방식을 수용하고 경건주의에 입각하여 이슬람의 진정한 가르침과 실천으로 귀의할 것

9 Robert Day AcAmis, *Malay Muslims: The History and Challenge of Resurgent Islam in Southeast Asia*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2).

을 주장한다. 이 단체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영국의 인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자국민의 반감을 더욱 고조시켰고, 인도 무슬림 공동체의 회복과 동시에 정치적인 연대의식 강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당시 영국 식민지하의 인도는 무슬림을 힌두교로 개종하려는 힌두교 부흥주의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했으나 인도의 이슬람 교육기관은 힌두교의 도전에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그 극복의 대안으로 일리아스는 무슬림 전도팀을 결성하고 여러 시골 지역으로 파견하여 이슬람의 주요한 가치를 가르쳤다. 두 종교 간의 긴장 속에서 타블리히 자마앗은 대체적으로 비정치 및 비폭력주의를 지향하였고 개인의 영성훈련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슬람을 통한 사회개혁의 성취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동시에 선지자 무함마드의 삶을 본받기 위하여 세계를 여행하며 불신자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키는 일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20세기 중반에는 인도 아대륙을 넘어서 중동, 북부 아프리카까지 회원수를 넓혀갔다.¹⁰ 최근 이 단체는 꾸준한 다와 활동으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에 주요한 뿌리를 내렸고, 미국과 유럽국가에 타블리히-자마앗 확산을 위하여 영국, 프랑스, 스페인을 거점지역으로 삼아 이슬람 전도활동에 열심을 내고 있다. 그 회원수는 최소 약1,200만명이며 공개되지 않은 신도까지 포함하면 전세계 약8,000만명까지도 추산하고 있다. 신도들은 ‘쿠루즈’(Khuruji)로 불리는 40일 간의 정규적인 단기전도활동(short-term preaching missions)에 참여한다. 그들은 최소 일주일 또는 몇 달에 걸친 전도활동을 통하여 무슬림 신앙의 규범과 의식을 강화하고 이슬람식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교육을 받는다. 회원들은 주로 10명 내외의 크지 않은 규

10 Lapidus, Ira M. *A History of Islamic Societies*, 신영성 옮김, 『이슬람의 세계사』Ⅱ (서울: 이산, 2008), 1560.

모의 남성중심으로 선교조직을 구성하고 엄격한 무슬림의 전통의 복과 차림새를 강조하면서 숙식, 세면, 기도, 전도여행 등 단체 순회 다와-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러한 다와-활동은 기독교의 단기선교프로그램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평신도 위주의 순회전도팀은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면 그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그 지역 이슬람사원에 지역주민을 초대하여 예언자 무함마드의 주요 가르침을 전한다.¹¹

이 단체는 종교적 신앙과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정통적인 데오반디(Orthodox Deoband)를 따르고 *Ijtihad*(자격있는 법학자의 독립적인 법적 의견)에 대한 *Taqlid*(사법적인 판례를 수용함)를 지지하고 이슬람의 성인숭배와 사당방문, 민속 이슬람의 혼합적 예식은 거부한다. 따라서 타블리히 회원은 정통적인 의식과 실천을 엄격히 따르고 *Sharia*(꾸란과 하디스를 주요 법원으로 하는 율법)를 준수한다. 타블리히 자마앗의 교리는 여섯가지의 주요한 원칙으로 이루어졌다. 제1원칙, 모든 무슬림은 이슬람교 입례시에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자임을 증언하다”(라 일라흐 일랄 라흐 무함마드 라쉴룰 라)라는 신앙고백 또는 *Shahādah*(증언사)을 아랍어로 소리를 내어 말하고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 제2원칙, 무슬림은 *Salāt*(예배)를 구체적인 방법과 규정에 맞춰서 실천해야 한다. 제3원칙, 무슬림은 이슬람의 근본 믿음과 실천에 정통하고 *Dhikr*(신을 기억하기 위한 행동, 디크르)를 예배와 삶 속에 구체화해야 한다. 이 운동 초기에 창시자의 조카인 *Malulana Muhammad Zakariya*(1898-1982)는 기본적인 신앙서 *‘Fadāil-I Amāl’*(선

11 타블리히 단체의 보다 구체적인 포교활동 내용은 “Tablighi Jama’at,” In Muslim Networks and Movements in Western Europe, *PEW Forum on Religion & Public Life*, 44-49 (September, 2010), Pew Research Center, file:///C:/Users/yesch/Desktop/Muslim-net-works-full-report.Tablighi%20jamaat.pdf (2022년 1월15 접속)을 참조하라.

행의 덕)을 작성하여 *Tablighi nisāb*(타블리히-종교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타블리히 회원들을 위한 신앙교육을 펼쳤다. 이 책은 쉬운 우르두어로 작성되었고 예배, 디크르, 자선, 성지순례 및 예언자와 꾸란에 대한 예식을 담아 타블리히 전도자들에 의해 전세계에 소개되었다. 제4원칙, 모든 무슬림은 동료 무슬림을 향한 공손함과 예의를 갖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존중(ikrām-I Muslim) 사상은 타블리히 회원의 종교적 의무이며 효과적인 전도 활동(da'wa)의 기본 전제로서 노인과 젊음이, 가난한 자와 이웃, 심지어는 적대적인 사람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다. 제5원칙, 무슬림은 항상 정직하고 순수한 의도를 품고 신실해야 한다. 즉 세속적인 마음을 버리고 모든 일은 알라를 위해 해야 한다. 제6원칙, 모든 타블리히 회원은 전도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다. 창시자 일리야스(Maulānā Ilyās)에 의하면, 전도는 이슬람성직자(Ulamā)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무슬림에게 해당되는 부르심이다.¹²

위의 타블리히-자마앗의 6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신앙고백의 내용은 알라만이 유일신으로 다른 신과 우상물의 숭배는 허용이 안되며, 오로지 알라의 유일성과 전지전능함, 자비하심과 창조성을 믿고 이슬람에 귀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인정하지 않을 때 알라의 계시에 따라 무함마드가 제시한 이슬람의 교리는 그 존립의 기반을 뿌리째 상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배실천은 내적으로 마음의 안정과 몸의 정결을 유지하고 알라에 대한 최대한의 경배심을 간직하기 위함이다. 타블리히 단체가 지향하는 믿음과 실천은 기존 경전 꾸란에 명문화된 이슬람교의 여섯 가지 종교적 신앙인 이맘(알라, 천사, 경

12 Mumtaz Ahmad, "Tablighi Jama'at" in *Oxford Encyclopedia of the Islamic World*, ed. Esposito, John 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294.

전. 예언자. 최후심판. 정명)과 다섯 가지의 종교적 실천 의무(신앙증언. 예배. 종교부금. 금식. 성지순례)에 대한 일상적인 삶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 것이다. 전문적인 성직자 외에도 일반 무슬림의 경건한 신앙훈련과 예배 및 전도 의무는 이슬람-다와의 지역화와 세계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또한 자선과 상호존중의 형제애는 개인적으로는 알라에 대한 복종과 그의 은총에 대한 절제와 감사를 드러내는 정신적인 훈련되었고,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사람과 약자에 대한 동정을 갖게 하였다. 이는 무슬림들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훈련으로 타블리히 자마앗이 성장하는 주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타블리히 자마앗의 다와 전략

일리야스(Maulana Ilyas)에 의한 타블리히 운동은 짧은 시간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수많은 무슬림이 이 운동에 참여하였고 파키스탄과 인도의 여러 지역에 모스크와 이슬람교육학교(Madrasa)가 설립되었다. 타블리히 자마앗은 1946년에 영국에 처음으로 포교단을 파견했고, 1952년과 1962년에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 포교단을 보냈다. 남아시아의 무슬림이 유럽으로 이민을 가면서 타블리히 자마앗은 런던, 파리, 브뤼셀, 토론토에 모스크를 세웠다. 1980년대에는 영국의 듀즈베리에서 세계대회를 개최하였고 유럽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타블리히 단체는 그 지역의 종교, 사회, 문화와 타협하며 이슬람의 가치와 무슬림 영성훈련 및 개종에 힘을 썼다. 이 단체는 설립초기의 비정치적 성향에서 벗어나 유럽 사회에서 법과 행정 그리고 시민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정치적인 유연성

으로 적응하였다. 1989년 영국의 퀸즈 로드 이슬람사 원을 방문 취재한 타임즈 편집장 션 오닐(Sean O'Neill)은 타블리히 단체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를 했다.¹³ “타블리히 회원들은 선지자 무함마드 시대의 종교관습과 생활습관의 모방을 열망하며 40일 간의 특별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슬람초기의 생활도구 이용을 권하기도 한다. 최근 이 단체는 서구 기독교가 젊은 세대들의 영적 필요와 사회적 일체감의 부족을 채우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이슬람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형제애를 강조하는 종교로 새벽 밤이슬 젖듯이 유럽사회로 살포시 파고들고 있다.” 2010년 이후 최근 몇 년간 타블리히 자마앗은 자신들의 회원 훈련과 교육 그리고 무슬림 사상 보급에 있어서 새로운 수단으로 최첨단 미디어를 선교 수단으로 강조하며 사용하고 있다. 수십년 전만해도 이 단체는 정보기술에 대한 상당한 회의감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YouTube와 같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과 다양한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이용하여 이슬람의 소식과 가르침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주목할 점은 여성이 점차적으로 이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회원은 자카리아(Muhammad Zakariya, 1898–1982)¹⁴의 서적을 탐독하고 독서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들의 독특한 설교방식을 개발하면서 남성보호자(Mahram)와 동행하며 타블리히 운동을 지원한다. 다양한 타블리히 지지자가 생기면서 비즈니스, 학생여행, 이슬람식 정치네트워크 등 세속적인

13 Jenny Talyor, “What is the Tablighi Jamaat?” *Theguardian.com*, (8 Sep 2009),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belief/2009/sep/08/religion-islam-tablighi-jamaat> (2022년 1월15일 접속).

14 Zakaria, Muhammad(1898–1982)는 타블리히 자마앗의 창시자 Iiyas의 조카이자 공동-창시자이다. 그는 타블리히 기본사상에 대한 책들을 저술하고 타블리히 회원과 지지자들을 위한 이슬람종교교육과정(Tablighi Curriculum) 정립에 크게 이바지했다.

목적에 의해 이 단체를 이용하는 회원들도 다소 늘어나고 있다.

타블리히 자마앗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이슬람에 대한 전문적인 종교학위 취득과 정규훈련 및 장기프로그램 참여를 다와 활동의 주요한 요소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단체의 회원은 누구나 여섯 가지 단체 교리를 바탕으로 설교를 하며 다와 활동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수많은 순회전도자들이 빠르게 늘어났고 인도 전역 및 전세계로 퍼져갈 수 있었다. 타블리히 자마앗의 세계화는 비정치적 참여를 가급적 유지하려는 목적에 있다. 창시자 일리아스는 정치그룹과 엮이게 되면 본인의 종교운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무슬림 개인의 영적인 개혁이 사회와 정치제도의 개혁보다 우선시함을 강조했다. 그의 믿음은 일반 무슬림의 마음을 얻었고 뜻을 같이 하는 무슬림 회원은 점차 늘어났다. 그의 운동 후반기에 인도의 파키스탄 독립을 두고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분파가 생겼으나 그의 지지자와 함께 비정치적 다와 운동을 고집하며 종교부흥 운동을 확대시켰다. 후에 이러한 비정치적 다와 운동은 파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지와 일반 무슬림의 신뢰를 얻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였다. 동시에 정부의 지원을 받은 타블리히 단체의 활동은 동남아와 서아시아의 이슬람 정당이 지역 무슬림의 지지를 얻는데 간접적인 도움도 주었다.¹⁵ 이 단체의 가장 큰 장점은 폭넓은 수용성과 비정치성으로 분파적, 급진적 이슬람주의자의 다와 참여와 수피적 의례를 통하여 영적인 위안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그 영역을 확장해 갔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타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배타적이고 대결중심의 단체성향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종종 야기하기도 한다.

15 Ahmad, *Tablighi Jama'at*, 297-298.

Ⅲ. 무슬림을 향한 기존의 기독교 선교접근과 재고

이번 장은 무슬림을 향한 기존의 기독교선교와 선교 접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무슬림 선교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해석이었다. 그중 존 마크 테리가 정리한 무슬림을 향한 기존의 다섯가지 접근방법을 간략히 살펴봄에 보다 협력가능한 선교 사역에 대해 재고하려 한다. 첫째, 대결적 접근: 18-19세기에 헨리 마틴, 칼 판더, 성 클레어 티달 같은 일부 선교사들이 공개 토론 방식의 논쟁과 설교를 통하여 무슬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 이런 방법은 성공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고, 오히려 무슬림에게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전통적인 복음주의 접근: ‘무슬림의 사도’로 불린 새뮤얼 즈웨머(Samuel Zwemer, 1867-1952)가 이 방법의 선구자로 여긴다. 초기에 그는 무슬림과의 대결적 접근에 집중하여 그들이 스스로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았고 그후 그리스도 중심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관계를 바탕으로 우정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접근은 무슬림 회심자들이 이슬람과 관계를 끊고 공식적으로 교회에 소속될 것을 권했다. 그 외에도 성경 배포, 라디오, 성경 통신 과정을 통해 복음을 전파했다. 셋째, 제도적 접근: 주로 교단 중심의 선교회(장로교, 회중교회, 남침례교 등)에서 사용하는 선교사역으로 병원, 학교, 고아원 등 기독교의 사회 봉사를 통해 무슬림과 관계를 형성하고 사랑과 동정, 겸손함을 실천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재정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회복지 시설 유지가 어렵고, 현지 이슬람정부가 시설을 폐지하거나 취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대화식 접근: 예수님의 사랑에 근

거한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화해를 목적으로 대화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20세기에는 템플 게어드너 (1873-1928)가 개척하고 케네스 크랙 (Kenneth Cragg, 1913-2012)이 발전시켰다. 이러한 접근의 사용자는 무슬림들이 무엇을 믿는지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익혀 간다. 상호간 우정에 기초하여 상대에 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무슬림을 구원의 주님께 인도한다. (5) 상황화 접근: 일반적으로 상황화 용어는 1972년에 복음과 문화의 상호관계성을 연구한 대만의 신학자 쇼키코(Shoki coe)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다. 현지인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무슬림 전도를 지향한다. 즉 선교사는 현지에 적합한 생활방식과 예배형식 등 무슬림이 이해하기 편한 신학용어의 변화를 통한 선교적 접근을 구상한다.¹⁶

지금도 선교사들이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 여전히 직면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개인영혼에만 초점을 맞추는 복음전도와 교회의 공적행동이 수반되는 사회참여의 구분에 있다. 복음 전도는 회심하는 숫자에 기준을 두고 선교의 성공 여부로 개종 또는 전도를 통한 교회 성장에 큰 무게를 두는 복음주의 선교사역이다. 한편 사회적 책임은 난민구제, 사회적 병폐의 치료와 교육의 제공, 치유와 경제적 자립 등에 강조점을 두는 에큐메니칼 선교사역이다.¹⁷ 때로는 어느 선교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선교사, 선교단체 또는 교단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기존의 다섯가지 무슬림을 향한 선교접근은 주로 개종과 교회성장에 무게를 많이 두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21세기의 선교는 보다 포괄적이고 협력 가능한 선교 이해와 사회적 책임이 함께 수반되는 선교도 절실히 요구된다. 레슬리 뉴비긴

16 키스 스와틀리 편저, 정옥배 옮김, 『인카운터 이슬람』 (서울: 예수전도단, 2005), 342-344.

17 안승오, 『제4 선교신학- 위기의 기독교를 위한 대안적 선교 패러다임』 (서울: CLC, 2016).

(Lesslie Newbigin, 1909-1998)은 다음과 같이 선교의 개념을 정의했다.¹⁸ 그는 ‘선교’ (Mission)란 포괄적인 의미로 보편적 교회 (the Church)가 세상으로 파송 받을 때 얻게 되는 과업 전체를 가리키는 개념이고, ‘선교사역’ (Missions)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 곧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장소에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이 정한 구체적 활동을 일컫는 말로 정의했다. 이와 같은 정의는 무슬림 선교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도 10억 이상의 무슬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수많은 무슬림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굶주리고 억눌리며 고통 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시대는 영혼구원과 동시에 복음의 사회적 책임이 절실히 요구된다.

IV. 전세계 기독교와 이슬람의 성장세

16세 이후 과학의 발전과 지리적 탐험의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선교는 아프리카, 남미 및 아시아에 대한 서구의 식민지 지배 하에 엄청난 특권과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서구의 폭발적 세계확장은 이슬람의 세력을 자연스럽게 가로막는 역할도 수행했다. 이는 기독교와 이슬람 양측 모두 그 시대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해당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성장하였음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¹⁹ 그러나 식민지 시대가 종식하는 20세기를 거치면서

18 Newbigin, Lesslie,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홍병룡 옮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서울: IVP 2007), p.231.

19 16세기 이후 기독교 성장의 배경은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라. David J. Bosch, *Witness to The World-The Christian mission in theological perspective*, 전재욱 옮김, 『세계를 향한 증거-선교의 신학적 이해』 (서울: 두란노, 1993), 141-145; 그 외에 이슬람 확산의 요인은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정수일, 『이슬람문명』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52-58.

두 종교의 성장세는 시대의 전환과 함께 기존과 다른 유형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장은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발표한 2010-2050년 사이의 세계종교 미래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래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지형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PEW, 2015).²⁰ 또한 두 종교 집단의 교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를 다룰 것이다.

Size and Projected Growth of Major Religious Groups					
Religious	2010 Population	% of World Population in 2010	Projected 2050 Population	% of World Population in 2050	Population Growth 2010-2050
Christians	2,168,330,000	31.4	2,918,070,000	31.4	749,740,000
Muslims	1,599,700,000	23.2	2,761,480,000	29.7	1,161,780,000
Unaffiliated	1,131,150,000	16.4	1,230,340,000	13.2	99,190,000
Hindus	1,032,210,000	15.0	1,384,360,000	14.9	352,140,000
Buddhists	487,760,000	7.1	486,270,000	5.2	-1,490,000
Folk Religions	404,690,000	5.9	449,140,000	4.8	44,450,000
Other Religions	58,150,000	0.8	61,450,000	0.7	3,300,000
Jews	13,860,000	0.2	16,090,000	0.2	2,230,000
World total	6,895,850,000	100.0	9,307,190,000	100.0	2,411,340,000

● The Future of World Religions: Population Growth Projections, 2010-2050 (PEW)

20 PEW, 2015. <https://www.pewforum.org/2015/04/02/religious-projections-2010-2050/> (2022년 1월 20일 접속) 을 자세히 참조하라.

2010년 전세계 인구 69억명을 기준으로 기독교인은 약 21억(31%)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무슬림은 약 16억(23%)명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 20세기 초까지 유럽국가는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원주민 그리고 남미와 동남아 지역을 서구의 식민지로 만들었고 이러한 식민지정책은 기독교 선교 확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²¹ 그 당시의 전세계 무슬림의 규모는 기독교인의 3분의 1 수준에 미쳤고, 1970년대까지 이슬람은 기독교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슬람 문화의 분위기는 일반적으로 다산을 장려하는 종교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번 리서치에서 실제적인 무슬림 가정의 출산율을 조사하고 예측한 결과, 향후 2050년에는 기독교인은 29억, 무슬림은 28억의 신도수로 두 종교집단이 거의 동일한 비율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전망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의 다산 문화의 요인이 작용했고 기독교 전도에 의한 개종도 그 주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반면 유럽에서의 무슬림의 증가는 노동시장을 찾는 무슬림들, 전쟁과 기아로 인한 난민의 유입에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세대를 걸친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높은 출산율은 유럽의 이슬람 증가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위의 보고서는 앞으로의 출산율과 사망률 그리고 지구촌 시대의 국제 이민의 요인이 미래 종교지형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변수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의 개종도 다소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분석한다. 분명한 사실은 이슬람은 꾸준히 성

21 Bosch, David J.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New York: Orbis Books, 2006), 226-230.

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세서리(Jocelyne Cesari)의 지적처럼, 유럽의 기독교 사회와 무슬림들 사이에 종교적, 문화적 갈등과 오해의 골은 깊어지고 있으며, 다문화-다종교의 현실속에서 사회적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일이 유럽사회의 커다란 고민으로 남아있다.²²

V. 제안: 21세기 바람직한 기독교 선교의 방향성

지금까지 우리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취해온 기존의 선교활동과 방법을 살펴보고, 두 공동체의 최근 성장세를 간략히 비교하고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두 종교의 성장세는 각각이 펼쳐온 선교 및 다와 활동보다는 현재 세계 지역별 출산 및 사망률 그리고 이민 등 다양한 원인이 오히려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경쟁적인 선교 태도는 서로 간의 불신과 혐오 그리고 오해만을 키울 것이다. 필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21세기 지구촌사회에 맞는 무슬림을 향한 보다 건설적인 기독교 선교의 3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주님의 제자도:

주님의 말씀과 삶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본분이다. 복음서 가운데 마태의 관점처럼,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섬김의 ‘값비싼 제자도’를 기대한다.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에 의하면, “그 은혜는 메마른 땅 위에 흐르는 물, 불안을 해소하는 위로,

22 Cesari, Jocelyne, ed. *The Oxford Handbook of European Islam* (Oxford: OUP Oxford 2014).

스스로 택한 종살이로부터 해방됨, 모든 죄의 용서”로 해석된다.²³ 이러한 구원은 세상과 나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이다. 또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다(골1:19-20).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인생의 궁극적 의미로 삼는다. 그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경험한 주님의 제자는 화해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도 기꺼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²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고난과 박해의 환경속에서 이웃을 향한 복음전도와 봉사의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순교로 선교의 극적인 증거를 보여주었다.²⁵ 이는 선교의 본질을 알려주는 주목할 만한 가르침이다. 우리가 무슬림을 향한 다양한 선교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하기에 앞서서, 주의 깊고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실한 제자와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한다 (빌2:5-11).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 1929-1992)의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과 사역에 대한 다음의 해석은 주목할 만하다.²⁶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 과부들, 병자들, 광산 노동자들, 죄수들, 노예들과 나그네들에 대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자선의 복음은 언어 이상의 능력과 행동의 사역이었다.” 이와 같은 언급은 예수의 근본 정신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실천적 메시지의 선포에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사랑과 섬김은 타종교와의 관계에도 화해의 다리를 놓게 한다. 김아영의 제언대로 “구

23 Bonhoeffer, Dietrich, *Nachfolge*, 김순현 옮김, 『나를 따르라』 (서울: 복 있는 사람, 2021), 40.

24 Peterson, Eugene H., *The Jesus Way: A Conversation on the Ways that Jesus is the Way*, 양혜원 옮김, 『그 길을 걸으라』 (서울: IVP, 2007), 23-24.

25 Gonzalez, Justo, L., *The Story of Christianity*, 엄성옥 옮김, 『초대교회사』 (서울: 은성, 2003), 165.

26 Bosch, *Transforming Mission*, 48.

원을 위한 유일한 희망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러한 증거는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입증하는 신실한 삶을 통하여 무슬림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자신을 부인하고, 선으로 악을 갚는 고난의 사랑만이 죄와 그러한 열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류를 향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될 것이다.”²⁷ 이는 선교의 본질적인 요소가 사랑에 근거하고, 그 사랑의 가장 깊은 차원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통하여 세상에 자신의 사랑을 계시하고, 예수는 그의 희생과 섬김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 안에서 세상의 벽을 넘어서 그분의 구체적 역사를 드러내신다. 내가 누구이든지, 역사의 어느 시점과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지, 건강하건, 병들었건, 섬기는 제자로서(눅22:27)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조건 없이 실천할 때 무슬림과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은 드러날 것이다.

2. 통전적 선교 (Holistic Mission)

통전적 신학은 그리스도안에 나타난 복음의 빛 안에서 온전함(Wholeness)을 추구하는 신학이다. 김명용은 “인간의 영원 구원만을 위한 편협한 신학을 지양하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원사역의 폭넓음을 인식하면서, 완전한 복음이자, 인간과 교회와 사회와 역사와 피조세계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전체를 온전하게 표현하는 신학”을 통전적 신학으로 정의하고 있다.²⁸ 이러한 정

27 김아영, “십자가 수난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의 예수 이해”,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11, No.2, (September, 2018), 10-40.

28 이종성, 김명용, 윤철호, 현효한, 『통전적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2004), 53-54; 김명용의 “통전적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 외에 같은 책, 현효한, “하나님의

의는 종교 간의 혼합주의는 거부하지만 타종교와 타문화의 이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특별히 이슬람과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선교지향적이다. 지난 1982년 Lausanne Committee for World Evangelization(로잔복음화위원회)는 선교지에서 발생하는 복음화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분법적 선교를 반성하고, 이 땅에서의 선교적 사명을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모두를 아우르는 통전적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²⁹ 왜냐하면, 예수의 선교사역은 말과 행동을 모두 담아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전적 선교개념은 무슬림을 향한 세계 선교에도 더욱 강조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사랑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의 파송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보쉬의 주장은 되새길 만하다.³⁰ 비록 기독교의 전도가 이슬람의 꾸준한 양적 성장세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사역, 고난, 부활, 다시 오심 등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말과 행동으로 무슬림들에게 진실된 감동을 주고 그리스도의 평화에 근거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무슬림을 향한 선교는 복음증거, 봉사, 정의, 치료, 화해, 해방, 평화, 교제, 교회건설, 상황화 등의 다양한 사역의 접근 방법이 항상 수반된다. 무슬림 선교에 있어서 지나친 대결의식과 이슬람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하려는 일부의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관계의 평화를 이루시는 화재자로 오셨다. 이슬람과의 파괴된 관계, 왜곡된 관계, 원수

평화로운 생명.” 269-311의 통전적 신학형성을 위한 제안을 참조하기 바란다.

29 김은수, 『세계 선교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06-313.

30 Bosch, David J., *Witness to The World-The Christian mission in theological perspective*, 전재욱 옮김, 『세계를 향한 증거-선교의 신학적 이해』 (서울: 두란노, 1993), 283-284.

된 관계를 회복하는 책임과 사명도 21세기 우리의 선교신학에 주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3. 공공선의 추구:

역사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는 공동선이나 사회에 대한 선한 역할을 강조해 왔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공의 선에 대한 생각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와 세계에 대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왔다. 이러한 의식은 구약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의 메시지이고, 그러한 공동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과 삶 속에서 구체화된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이자 가르침이다(마 22:37-40). 기독교는 작은 시민사회를 넘어서 세계화의 공공문제를 다른 종교단체와 함께 고민하고, 공공생활에 적극 참여하고 선지자적 자세로 공적 영역에 있어서 편협한 세계관과 배타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러한 자세는 지구촌 시대의 광범위한 문제에 있어서 상호책임에 기여하고 사회 전체로 보아서 큰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³¹ 이러한 고민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에 있어서 오랫동안 이슬람 사역과 연구의 개척자 역할을 했던 전재욱의 “유일신 사상, 창조관, 역사관, 종말관 등에서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교리들이 많았지만, 1,400년의 역사를 볼 때 두 종교집단은 평화로운 공존보다는 갈등과 전쟁의 관계로 드러난다”라는 역사적 해석에도 깊이 드러난다.³² 두 종교 공동체의 오

31 김창환, 『공공신학과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1), 183-192. 그 외에 공공선의 추구를 위한 연구물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류영모 외 지음, 『공적복음과 공공신학』 (서울: 킹덤북스, 2021).

32 전재욱, 『기독교와 이슬람: 문화의 경계를 넘어 만난 이슬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48.

랜 대결과 갈등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공유 가능한 교리들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서로 연구하고 발전시킨다면 보다 협력 가능한 평화공존을 모색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가장 큰 핵심교리도 ‘사랑’에 있다. 이는 이슬람의 경전 ‘꾸란’은 전체가 1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9장 ‘타우바’를 제외한 모든 장이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2007년 요르단에서 권위있는 이슬람종교 지도자들이 상호평화를 위하여 기독교종교지도자들에게 보낸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공통의 말씀’ (A Common Word between Us and You) 공동문서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공통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함을 강조한다.³³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화해에 근거한 공공선의 추구는 세계화와 관련하여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선교의 명령이 될 수 있다. 21세기 인류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6억의 무슬림(23%)과 21억의 기독교인(31%)이 공공의 선을 함께 추구하고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어려운 현안 (전쟁, 난민, 기근, 가난, 이민자, 여성의 지위, 아동학대, 인종과 종교차별, 자연재해, Covid-19과 같은 전지구적 질병들, 생태계 문제 등)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협력하여 나갈 수 있다면, 두 종교의 건설적인 공생의 길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두 집단의 긍정적인 협력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볼프(Miroslav Volf, Born 1956)가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도 주목할 만하다.³⁴ 첫째, 두 종교 공동체는 상호 존중되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이 두 공

33 요르단 암만의 모임에서 기독교와 이슬람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정신은 사랑에 기초한다는 전세계 저명한 무슬림학자들의 성명서이다. 보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아래의 <https://www.acommonword.com/>(2022년 1월15일) 사이트를 참조하라.

34 Volf, Miroslav, *Allah: A Christian Response* (New York: Harper One, 2012), 8-9.

동체의 삶을 바르게 이끄는 절대적 가치가 상당부분 서로 중복되어야 한다. 21세기 기독교인의 건설적인 선교적 방향은 이러한 공통의 가치들을 무슬림들과 함께 연구하고 이러한 가치들과 결과물이 서로의 삶의 자리에 적용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는 무슬림을 향한 선교의 중요한 방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는 서로를 향한 오랜 적대감과 편견을 내려놓는 화해의 장을 마련하고 지구촌 시민이 당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함께 해결해가는 협력과 희망의 길을 열어 줄 것이다.

VI. 나가는 말

지금까지 이슬람 다와(Da'wa)를 대표한 무슬림 전도단체의 활동과 특정지역 및 전세계의 종교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그에 대한 결론은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20세기 중반 이후 개종과 전도 중심의 공격적인 이슬람 다와의 방식이 양적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각국의 이민정책과 전체적인 출산율과 사망률이 오히려 특정 지역과 세계의 종교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타블리히 자마앗의 국제 모임을 통한 Covid-19의 확산에서 바람직한 선교적 교훈도 얻을 수 있었다. 공공의 안녕과 건강에 위협을 일으키는 종교집단의 지나친 열정과 이기적인 행동들이 오히려 사회적 반감을 불러 일으키고, 선교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위의 연구를 통하여 21세기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경쟁과 대

결의 배타적 태도보다는 협력과 상호 존중의 동반자적인 관계로의 방향 전환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의 중요성과 함께 지구촌 시대의 더불어 이웃으로 종교의 장벽을 넘어서 인류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운 현안들이 주요한 과제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 글에서 지면상의 제한으로 21세기 이후 두 종교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상호존중과 협력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과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는다.

■ 참고문헌

- 김은수. 『세계 선교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김창환. 『공공신학과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1), 183-192.
- 곤잘레스 후스토. 엄성욱 옮김. 『초대교회사』. 서울: 은성, 2003.
- 안승오. 『제4 선교신학-위기의 기독교를 위한 대안적 선교 패러다임』. 서울: CLC, 2016.
- 아이라 M. 라피두스. 신영성 옮김. 『이슬람의 세계사』 II. 서울: 이산, 2008.
- 이종성, 김명용, 윤철호, 현효한. 『통전적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2004).
- 전재욱. 『기독교와 이슬람: 문화의 경계를 넘어 만난 이슬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 키스 스와톨리 엮음. 정옥배 옮김. 『인카운터 이슬람』. 서울: 예수전도단, 2005.
- Abdel Haleem, M.A.S. ed. *The Qur'an, A new transl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AcAmis, Robert Day. *Malay Muslims: The History and Challenge of Resurgent Islam in Southeast Asia*.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2.
- Adrew Harding. *The Constitution of Malaysia*. Oxford: Hart Publishing, 2012.
- Bonhoeffer, Dietrich, *Nachfolge*, 김순현 옮김. 『나를 따르라』. (서울: 복 있는 사람, 2021).
- Bosch, David J. *Witness to the World: The Chrstian misson in*

- theological perspectiv.* 전재옥 옮김. 『세계를 향한 증거』. 서울: 두란노.
- _____.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New York: Orbis Books, 2006.
- Cesari, Jocelyne, ed., *The Oxford Handbook of European Islam*. Oxford: OUP Oxford, 2014.
- Newbigin, Lesslie.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홍병룡 옮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서울: IVP, 2007.
- Peterson, Eugene H., *The Jesus Way: A Conversation on the Ways that Jesus is the Way*, 양혜원 옮김. 『그 길을 걸으라』 (서울: IVP, 2007), 23-24.
- Saravanamuttu, Johan. *Islam and Politics in Southeast Asia*.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0.
- Volf, Miroslav. *Allah: A Christian Response*. New York: Harper One, 2012.
- 김아영. “십자가 수난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의 예수 이해.”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11, No.2 (September, 2018), 10-40. 1993.
- Kortteinen, T. “Islamic Resurgence and the Ethnicization of the Malaysian State: The case of Lina Joy.” *Sojourn: Journal of Social Issues in Southeast Asia*, vol.23, no.2. (Singapore: ISEAS, 2008), 216-233.
- Soper, J, c., Fetzer, S, J., “Religious Institutions, church-State History and Muslim Mobilisation in Britain, France and Germany.” *Journal of Ethnic & Migration Studies*, Vol.

33 issue 6, (August, 2007).

Mumtaz Ahmad, “Tablighi Jama’at” in *Oxford Encyclopedia of the Islamic World*, ed. Esposito, John 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293–299.

Jenny Talyor. “What is the Tablighi Jamaat?” *Theguardian*(Sep 8, 2009),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belief/2009/sep/08/religion-islam-tablighi-jamaat>(2022년 1월15일 접속).

“A Common word between Us and You.”. <https://www.acommonword.com/>.(2022년 1월 20일 접속).

“Tablighi Jama’at.” *Muslim Networks and Movements in Western Europe*. PEW Forum on Religion & Public Life, 44–49(September, 2010), Pew Research Center, file:///C:/Users/yesch/Desktop/Muslim-networks-full-report.Tablighi%20jamaat.pdf (2022년 1월 15일 접속).

“The Future of World Religions: Population Growth Projections, 2010–2050.” (April 2, 2015)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forum.org/2015/04/02/religious-projections-2010-2050/>(2022년 1월 20일 접속).

■ ABSTRACT

Analysis and Proposal of Christian Mission and Islamic Da'wa : Based on a Case Study of Tablighi Jama'at.

Jai Hyuk Cho

Over the past 2,000 years, Christianity has expanded its territory of truth through significant missionary works, and Islam through Da'wa over the past 1,400 years. These geographical expansions brought about clashes and exchanges between the civilizations, giving the two groups both the glory of conquest and the pain of being colonized. Unfortunately, these historical experiences of triumph and pain have caused prejudice, fear, and misunderstanding towards each other. This pattern of competition between the two religions was reflected in their activities of spreading the truth.

This article examines a case of the recent Islamic propaganda movement called Tablighi Jama'at and discusses its similarities with the Christian mission. After comparatively analyzing the recent growth of Christianity and Islam, this paper proposes a desirable direction for Christian missionary work towards the

achievement of the hop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religions.

Keywords: Tablighi Jama'at, Islamic Da'wa, Christian Mission, Conversion, Religious Growth, Mutual Respect, Co-operation